

#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은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한 역사적사변

박 기 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것과 함께 당조직건설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무장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국내외의 여러 지방들에 조직되어 활동하는 당조직들까지도 통일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83권 43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선행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경험,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9(1930)년 7월 첫 당조직이 결성되었으며 그를 모체로 하여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유격구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강화된 조건에서 전반적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있는 당지도기관을 내오는것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주체23(1934)년 3월 왕청현 마촌에서 열린 반일인민유격대 군사정치간부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하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에 당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데 기초하여 그해 5월 왕청현 다홍왜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대표대회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은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한 역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이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한 역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조선인민혁명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확대되는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울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고 국내의 광범한 지역에 기층당조직과 각급 당지도기관이 건설확대된 조건에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런데 아직 당이 창건되지 않았고 당중앙이 없는 조건에서 당조직의 최고령도기관을 어디에 두며 그 명칭을 어떻게 붙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실정에서 통일적지도기관을 무장대오안에 두며 그 명칭도

무장대오의 당지도기관명칭으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였다. 그것은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이 벌어지고있고 혁명의 사령부가 군대안에 위치하고있을뿐 아니라 한 지역에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류동하면서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해야 하였던 당시의 구체적실정과 관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면서 그것을 최고령도기관으로 하는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인민혁명군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는 당조직들까지 통일적으로 지도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안에는 상무위원회와 집행부서인 정치부를 두고 여기에 조직과, 선전과, 청년과, 민운과(지방과) 등 필요한 기구를 두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단과 련대, 현당과 구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대회였으며 이 당위원회들에도 상무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유격부대안의 당조직들은 해당 지방당조직들의 지도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일수 있게 하는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된 당지도기관으로서 모든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령도기관이였다.

모든 당원들은 기층당조직에 소속되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기층당조직들은 각각 상급당조직들인 사단당위원회나 련대당위원회에, 사단당위원회와 련대당위원회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에 복종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국내에서는 온성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별 지구당위원회들이 조직되고 그 지도밑에 수많은 당세포, 당분조들이 활동하였으며 주체25(1936)년 12월에는 국내 당조직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서 국내당공작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 동만에서는 현당위원회, 구당위원회, 당세포, 당분조들이 조직되었으며 주체25(1936)년 3월에는 동만당공작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주체26(1937)년 2월 백두산서남부의 남만지방에서는 장백현당위원회가 조직되고 그아래에 구당위원회, 당세포, 당분조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이밖에도 국내외의 여러 지역들에 기층당조직들이 무어지고 활동하게 되였다.

이 모든 당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 활동하게 되였다.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인민혁명군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국내외의 여러 지방들에 조직되어 활동하는 당조직들까지 통일적으로 지도한 최고령도기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은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지도밑에 보다 조직화된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게 됨으로써 당조직확대와 당장성사업을 계급적토대우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당조직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일제의 악랄한 모략을 제때에 저지파탄시키고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끌고가면서 대오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해

독을 끼친 종파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할수 있게 되었다.

당조직들은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과 반당적인 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으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에 의하여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마련되게 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당조직건설사업을 전국적판도로 급속히 확대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이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최고령도기관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제때에 접수토의하고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으며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시키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왔다.

주체24(1935)년 항일무장투쟁이 유격구의 협소한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광활한 지대로 세차게 확대된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당적령도에 의해 이루어진것이였다.

당시 유격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광활한 지대로 진출시키는것은 항일무장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주체24(1935)년 3월 하순 왕청현 요영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여 유격구를 해산하며 인민혁명군이 광활한 지대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요영구회의방침을 접수하고 무턱대고 《유격구사수》를 주장하던 일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견해를 신랄히 비판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요영구회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방침의 정당성과 의의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해설선전하여 광범한 대중이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는 사업,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대오확장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에서 편향이 없도록 옳바로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유격구는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고 발전적으로 해산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광활한 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당위원회의 주도세밀한 지도밑에서 일제를 격멸하는 대소규모의 수많은 전투들을 끊임없이 벌렸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 반일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결과 항일무장투쟁은 광활한 지역에서 적들을 종횡무진으로 쓸어넘기면서 급속히 확대발전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1930년대 후반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

어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시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롭게 양양시켜나갈수 있도록 항일무장대오를 중추로 하는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어가고있었으며 일제의 심화되는 식민지적폭압과 략탈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일감정이 극도에 이르고 반일대중투쟁이 광범한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국제적으로도 파시즘과 반파시즘세력간의 첨예한 투쟁속에서 반파쇼민주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이 날을 따라 더욱 장성강화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25(1936)년 2월 념안현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으며 이 회의에서 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로 진출시키고 무장투쟁을 점차 국내에로 확대하며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에로 이끌어올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어 여러 회의들에서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호두회의방침을 접수토의 하였으며 그후 미혼진회의, 동강회의, 장백현 19도구 마순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회의, 남패자회의 등 여러 회의들에서 방침관철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인민혁명군을 국경지대로 진출시키고 무장투쟁을 점차 국내에로 확대하며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백두산지구에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중심적령도거점인 비밀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그것을 국내와 장백일대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의거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 하시면서 몸소 후창, 풍산, 랑림, 부전, 신흥, 양덕지구를 비롯한 국내깊이까지 진출하시여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성원들의 사업을 지도해주시였으며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와 같은 국내진공작전과 국경일대에서의 간삼봉전투, 리명수전투 등 수많은 대소전투들을 조직지휘하심으로써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광범한 조선인민에게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국내도처와 장백일대에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그들이 크고작은 전투를 비롯한 무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항일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식의 반일대중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에서는 일대 양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관철에로 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1940년대 전반기를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는 위대한 승리의 시기로 빛내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멸망이 확정적이며 시간문제라는것을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9(1940)년 8월 돈화현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후 여러 회의들에서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소할바령에서 진행된 군정간부회의와 당정치일군회의 등 여러 회의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으며 인민혁명군부대들과 각급 당조직들, 혁명조직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간백산밀영과 소만국경일대의 훈련기지들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훈련부대들의 집중군정훈련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만주의 광활한 지역과 국내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의 군사활동과 대중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다그쳐짐으로써 조선혁명의 중추적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들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전개할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주체적혁명력량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할 준비가 완성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8월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최후공격명령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마침내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은 당창건위업이 완성될 때까지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한 역사적사변이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선군혁명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